DuPont, 동국무역 인수 재도전

효성 · 코오롱도 군침 … 스판덱스 시장주도권 경쟁 치열

DuPont을 비롯해 효성, 코오롱 등 국내외 주요 화섬기업들이 워크아웃중인 동국무역의 핵심사업인 스판덱스 부문 인수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.

<아라크라>와 <텍스론> 등 유명 브랜드를 2만톤 생산하고 있는 동국무역은 스판덱스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이 DuPont(약 40%), 효성(13.7%)에 이어 12.1%로 3위에 올라 있다.

동국무역의 구미 스판덱스 공장 인수에 먼저 나섰던 DuPont은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단 주춤했지만 인수작업을 다시 진행중이다.

국내기업 중 효성은 최근 동국무역의 스판덱스부문 인수의사를 제일은행에 적극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. 스판덱스 사업에서 저조한 시장점유율(1.2%)을 보이고 있는 코오롱도 사세확장의 호기로 삼기 위해 인수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.

국내 화섬기업들은 동국의 스판덱스 사업부문이 미국 DuPont에 넘어가면 더 이상 설땅이 없어진다고 보고 인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.

DuPont이 스판덱스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을 더 이상 높이는 것을 견제하고 동국무역의 브랜드 파워와 생산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시장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이다.

그러나 동국무역은 2002년 매출이 8100억원을 넘고 영업이익도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으며 현금흐름이 양호해지고 중국 등 해외시장의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채권단은 굳이 알짜사업을 분할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11/14>